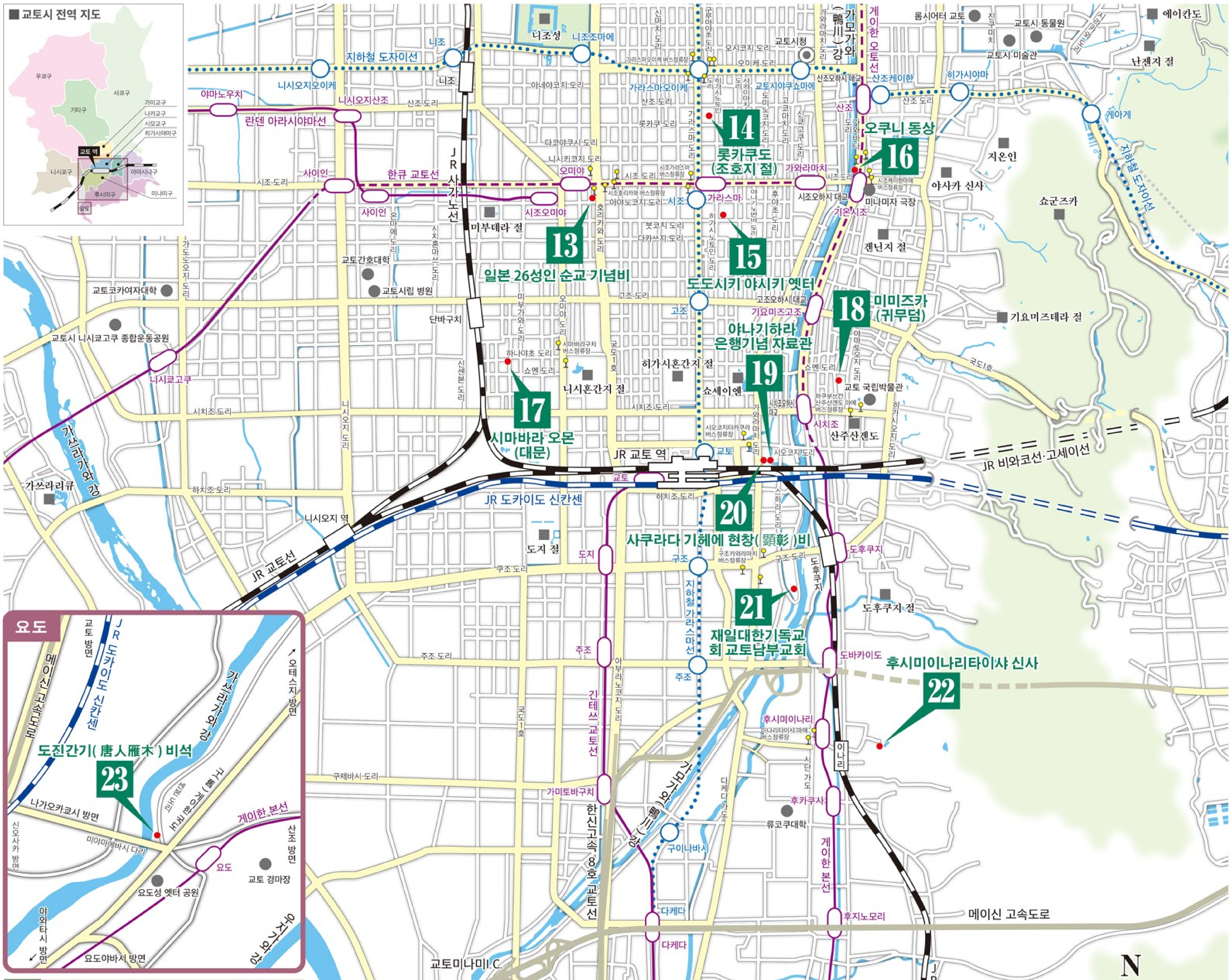

13 일본 26성인 순교 기념비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전하는 곳

16세기 후반에 들어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교토에도 많은 신도들이 있었으나 권력을 쥐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를 당하여 1596년 기독교 신도 26명이 나가사키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된 신도들의 순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포교(布教) 활동의 거점으로 전해지는 이 곳에 비석이 건립되었습니다.

- 시영버스 201 203 207 등 "시조호리카와"에서 도보 4분
- 한큐 "오미야"역에서 도보 5분

14 롯카쿠도(조호지 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쇼토쿠 태자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 서민의 신앙 대상이 되면서 관음보살의 구제를 받는 신앙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차별 주민이 구제를 받는 장이기도 하고 또 기근 발생 시에 수용처가 건설되는 등 빈민들이 구제를 받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 지하철 "가라스마오이케"역에서 도보 3분
  한큐 "가라스마"역에서 도보 5분

15 도도시키 야시키 옛터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남북조(南北朝)시대 헤이케 비파의 연주가인 아카시 가쿠이치(겐교=맹인 중 최고 관직자)는 맹인의 자치적 상부상조 조직인 도도자(当道座)를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의 저택은 "쇼쿠야시키"라고 일컬어져, 맹인들의 미술, 예능 시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지하철 "시조"역에서 도보 3분

16 오쿠니 동상

피차별 민중의 활약과 관련이 있는 곳

당시 최하층 신분이었던 이즈모 지역의 오쿠니가 1603년에 시조가와라에서 춘 "가부키(기울어짐)" 춤은 큰 인기를 누려 삽시간에 여러 지방에 퍼졌으며, 오늘날 가부키 연극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가부키의 창시자·발상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게이한 "기온시조"역 바로 앞
  한큐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2분
  시영버스 201 203 207 등
  "시조케이한마에" 바로 앞

17 시마바라 오몬(대문)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곳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허유곽이었던 시마바라는 에도 시대 초기에 설치된 당시에는 "니시신 야시키"라고 불렸으나 그 후 규슈의 시마바라를 본떠서 "시마바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대문은 동쪽 출입문으로, 시마바라 유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시마바라 오몬은 에도 막부(도쿠가와 막부) 말기인 1867년에 재건축된 대문으로 교토시 등록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JR "단바구치"역에서 도보 7분
  시영버스 206 207 등
  "시마바라구치"에서 도보 6분

18 미미즈카(귀무덤)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전하는 곳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한 조선 침략 시, 목을 자르는 대신 귀나 코를 잘라 전리품으로서 헌상했습니다. 영혼을 달래고자 일본에 보내 온 귀와 코를 매장한 곳이 미미즈카입니다. 당초에는 "하나즈카(코무덤)"로 불렸으나 , 에도 시대 이후 "미미즈카(귀무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시영버스 206 208 등
  "하쿠부쓰칸 산주산겐도마에"에서 도보 5분
- 게이한 "시치조"역에서 도보 6분

19 야나기하라 은행기념 자료관

인권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곳

1899년에 설립된 "야나기하라 은행"은 피차별 부락 주민의 힘으로 설립된 일본에서 유일한 은행이었습니다. 이 야나기하라 은행의 건물을 이설, 복원하여 1997년에 인권 자료 전시 시설로서 개설했습니다. 교토시 등록 유형문화재로도 등록된 귀중한 서양식 목조 건축물입니다. 입장 무료.
TEL·FAX 075-371-0295

- JR·지하철 "교토"역에서 도보 8분
- 게이한 "시치조"역에서 도보 10분
- 시영버스 4 17 205 등
  "시오코지타카쿠라"에서 도보 4분

20 사쿠라다 기헤에 현창(顯彰)비

피차별 민중의 활약과 관련이 있는 곳

현재의 시모교구에 있던 야나기하라 마치(동)의 동장으로 1889년에 취임한 사쿠라다 기헤에는 불황으로 인해 가죽산업이 타격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자기 재산을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감염을 막고자 지역의 위생 유지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 JR·지하철 "교토"역에서 도보 8분
- 게이한 "시치조"역에서 도보 10분
- 시영버스 4, 17, 205 등
  "시오코지타카쿠라"에서 도보 4분

21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토남부교회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전하는 곳

현재는 수많은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신앙의 장이기도 하고 휴식터, 생활·문화의 장이기도 하나, 2차대전 하에서는 탄압 대상이었고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2차대전 후 다시 전도소가 설치되었으나 예배당이 건설된 것은 해산된 지 35년이 지난 1976년이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1995년에 신축된 교회입니다.

- 시영버스 202 207 208 등
  "구조카와라마치"에서 도보 6분

22 후시미이나리타이샤 신사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는 곳

일본 전국의 이나리 신사의 총본궁으로 , 센본 토리이(기둥문)로 유명합니다. 이 신사를 창건한 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진(秦) 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 씨가 일찍이 후시미에 거주하여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서기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시미이나리타이샤 신사 외에도 수많은 절과 신사가 진 씨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 JR "이나리"역 바로 앞
- 게이한 "후시미이나리"역에서 도보 5분
- 시영버스 남(南)5
  "이나리타이샤마에"에서 도보 7분

23 도진간기(唐人雁木)비석

국제교류와 관련이 있는 곳

"도진(唐人)"이란 에도 시대 당시 장군이 대물림을 할 때나 경사를 지낼 때 조선왕이 축하 사절로 파견한 조선통신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도진은 쓰시마에서 세토내해를 거쳐 요도가와 강을 거슬러 올라 요도성 부근에 착안한 후 육로로 에도를 향했습니다. "간기(雁木)"란 "부두"를 일컫는 말로, 현재는 착안지(도진간기) 옛터를 표시한 비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 게이한 "요도"역에서 도보 5분